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신년사

“위기극복 정상화 원년... 선도국가 시대 열 것”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통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기겠다”고 밝혔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일상회복을 바탕으로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이루고 선도국가 임지를 굳히는 데, 임기 마지막까지 달변 없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앞선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은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문제와 부동산 정책 등 미완의 과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2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 가야 한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다”며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쳐겠다”며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라며 한계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민주주의의 진전, 권력기관 제도화... 개도국서 선진국된 유일한 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로비 계단 앞에서 20분 동안 발표된 공식 신년사에서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다”며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됐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며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한층 더 나아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됐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다”며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국민의 삶 완전 회복... 우리가 세계의 새로운 표준”

문 대통령은 이같은 임기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주의의 진전... 개도국서 선진국된 유일한 나라 국민의 삶 완전 회복... 우리가 새로운 세계 표준 적대·증오·분열 아닌 희망 담은 통합의 대선 되길”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며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 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

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뛰며 뛰며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무덤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를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위기극복과 더불어 선도국가로의 진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 전략... 한반도 평화 노력도 끝까지’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미완의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까지 (주거 문제의)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초광역 협력 모델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끌어왔던 문 대통령은 “하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

▲ ‘적대·증오·분열 아닌 희망 담은 통합의 대선 되길’

문 대통령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은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는 “국민 통합의 바람도 함께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가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난 위대한 성공의 역사”라며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기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며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리고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는다”며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고인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코로나19 순직공무원 추모·군경묘지 참배

김승수 전주시장은 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다 파로로 사망한 순직공무원 고(故) 신창섭 주무관을 추모했다.

고 신창섭 주무관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 28일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등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공휴일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다 2월 27일 새벽 자택에서 취침하던 중 파로로 사망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같은 해 5월 20일 고인의 순직을 결정했으며, 7월 28일 국가



유공자 등록 인공이 의결돼 지난해 4월 18일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이어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 낙수정 군경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김승수 시장은 “고인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그대였지만 혼자서 아닌 연대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 발전·시민 복리증진 위해 힘 쓸 것

전주시의회 의장단 새해 군경묘지 참배

전주시의회 의장단이 3일 오전 전주군경묘지에서 신년 참배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의장단은 한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강동화 의장은 “임인년 새해에도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을 해결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일 오전 전주군경묘지에서 참배를 하고 있는 전주시의회 의장단.

회의 역할 강화와 위상 정립을 위해서 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사무국장 등 최소년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장단과 의회사무국장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석해 진행했다. /유호상 기자

“귀 열고 마음 열 것”

기본사회위원회, 새해 첫날 거리인사... ‘혁신’ 다짐

“귀를 열겠습니다, 마음을 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강남훈)는 3일 전국 광역위원회와 기초위원회가 동시에 참여하는 임인년 첫출근 거리인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강남권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들과 광역위원회 상임위원장, 상근위원장, 기초위원회 담당자,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등 기본사회위원회 전 구성원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혁신’과 ‘쇄신’, ‘도전’과 ‘변화’ 등의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혁신을 다짐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며 “기본사회위원회는 더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다가갈 혁신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기본사회위원회(상임위원장 이원택, 상근위원장 한양환)는 도내 곳곳에서 진행했으며 각 지역 대표와 정교수(군산대 경제학과), 천호성 교수(기본소득국민운동 교육청소년본부 대표) 등 지지자들이 참여해 자발적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번 새해인사를 시작으로 매주 거리인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극복과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역발전 위해 한눈 팔지 않을 것”

양성민 전 도의원, 장수군수 출마 선언... 5대 공약 발표



양성민 전 전북도의회원이 3일 장수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장수군수 선거에 공식 출마 선언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장수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 양성민은 오직 군민만 생각하고, 오직 군민과 함께하며, 장수군 발전을 위해, 장수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한눈팔지 않겠다”면서 “사랑하는 고향 장수의 발전을 위해 장수군수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 전 의원은 “양성민의 정치이념은 이념을 따지지 않고 공정한 정치이며, 부족한 것을 고르게 만드는 평등의 정치, 결코 한눈팔지 않는 열정과 신념의 정치”라면서 “이러한 정치철학을 펼쳐 장수군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수군 발전을 위한 일·이·삼 비전을 제시하며,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일·이·삼 비전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농민 지역업 등 소득 2배 증가, ▲인구 3만 이상이 함께 일하는 행복한 장수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양 전 의원은 일·이·삼 비전을 토대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지원, ▲모두를 위한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와 주민주도 확대, ▲교육과 문화·예술·체육의 선진지 등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지

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제값받는 농업,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신소득작물(기능성 작물 시범사업)개발, 빈값 농기계 지원, 청년창업농지원소 운영 등을 꼽았다.

또한 모두를 위한 복지를 위해 의료원 시스템 변화를 통한 마을주치의 시스템 구축, 인근 대형병원과 연계한 응급상황 신속대처, 의료비 환인해택 등을 추진하고 원격진료 활성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산모와 신생아 병원 진료시 이동지원과 임신에서 출산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나이가 유아·어르신들의 기저귀 지원과 여성 생리대 무상지원, 최용득 전 군수시절 추진했던 가족화사업을 재추진하고, 효도쿠폰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영세상인 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 및 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확대 및 이차보전 확대지원, 마을단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민력동물사업, 청년 및 중장년을 위한 창업경험충전소, 주거안정정책, 미디어지원센터 등의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마을 참여예산제도와 세대별 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군수실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와 주민주도를 확대하고, 애환교육진흥재단의 사업 다양화, 장학금 설치, 문화·예술 분야 기반시설 구축, 전업예술인 활동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한 교육과 문화·예술·체육의 선진지로의 실현을 제시했다. /유호상 기자·장수=고관호기자